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광주선관위, 장애인유권자와 선거체험 실시

남구장애인복지관서 지체·발달장애인 유권자 30여 명
선거참여 중요성 이해 높이고 투표권 행사 도움 주고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지체·발달장애인 유권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유권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유권자 연수는 선거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의투표 체험을 통하여 장애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광주선관위와 장애인복지센터가 함께 마련하였다.
지난 9월 17일 광산구장애인복지센터 연수를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각 구에 설치된 장애

인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특특 선거콘서트’ ▲ 장애인용 기표보조용구를 사용한 ‘투표 내손으로 직접’ 선거체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SKT ‘인공지능 돌봄’, 지속
가능개발목표 리포트 우수 사례

SK텔레콤이 독자 어르신 케어를 위해 선보인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세계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발간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 리포트’에 우수사례로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GSMA SDG 2019’ 리포트는 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이동통신산업의 기여와 우수 사례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GSMA가 발표한 리포트는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에서 독거노인 돌봄 비용 증가 및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SKT가 ‘행복커뮤니티-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리포트는 ICT 기반의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기존의 노인 돌봄 및 복지정책과 비교할 때 비용면에서 효율적이고, 행복커뮤니티 프로젝트가 SDG 3번 목표인 건강과 웰빙을 달성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포트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외에 △모바일을 통한 P2G 지불 서비스(오픈지통신, 아프리카) △농업용 정보 제공으로 수확량증대 및 재해 피해 최소화(텔레노어, 파키스탄) △사물인터넷(IoT)으로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AT&T 미국, 텔레포니카 에쿠아도르) △알파스 기후변화 모니터링 고고도 안테나 등(오렌지, 프랑스) △5G 런칭(버라이즌, SKT, KT, LGU+) 등을 주요 우수 사례로 선별했다.
유용환 SK텔레콤 SV Innovation 센터장은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고령화 문제 해결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장흥군, 촘촘한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장흥군은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리는 등 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장흥군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부모들의 애로사항을 털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군은 국비 4천 100만원을 확보해 10월 1일부터 12명의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장흥지역자활센터를 지정했다.
1천300백만원의 사업비로 85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제공기관이 없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기관 수를 세 개소로 늘리고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지정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및 가족이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장애인복지관 “제주도로 소풍 다녀왔어요”

2박3일 일정 제주도 일원서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3차 진행



여행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선선해진 날씨에 제주도의 바닷바람을 쐬니 정말 좋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영암군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관외여행을 통해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문화적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암군장애인복지관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사)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인 더마파크, 카멜리아 힐, 아트리움 등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힐링의 시간으로 채워졌다.